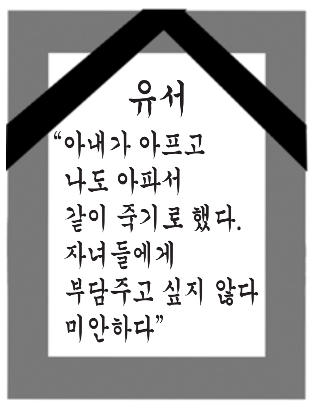

가난·질병이 부른 '목포의 눈물'

100조 복지시대의 그늘 … 노부부의 안타까운 죽음

"자식들에 짐 되기 싫어…" 유서 남기고 목숨 끊어

지병을 앓던 노부부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오후 3시40분께 목포시 죽교동 김모(82)씨의 집에서 김씨와 부인 신모(69)씨가 숨져 있는 것을 김장 김치를 전해 주러 들렀던 사위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방에는 타다 남은 연탄 2장이 놓여 있었고 방문은 연기가 새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듯 비닐과 테이프로 덮여 있었다. 집안은 깨끗이 정리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김씨가 지난 20일 자필로 쓴 편지지 1장 분량의 유서, 영정 사진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몇 달 몸 상태를 지켜본 후 생사를 결정하기로 결심했다"는 내용과 함께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 고통받는 집사람과 함께 떠나겠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부는 평소 금슬이 좋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김씨는 최근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아온 부인 신씨 간병을 도맡아 했다. 김씨는 신씨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 뇌출혈로 쓰러질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신씨 병간호에 극진한 정성을 쏟았다고 주민과 유족들은 전했다.

이웃 주민은 "부부 금슬이 좋았다"면서 "몸이 성치 않아 언제까지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 순 없다는 말을 자주 하셨다"며 안쓰러워 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사고 발생 이틀 전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점,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나웃참 〈9024〉 김종두

해남 황산면 가을배추 농가 가보니…

널뛰는 農政 멍드는 農心

정부 가격예측 실패에 농민들만 피해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 배추밭. 기자를 비롯, 박철근(27)씨 등 5명은 배추밭에 쪼그리고 앉아 가을 배추 밑동을 부지런히 잘랐다. 3명의 일꾼이 배추를 잘라 옮겨 놓으면 다른 일꾼들이 1t 화물차에 실은 뒤 인근 배추 절임공장으로 옮기기로 했다. 세 시간이 넘게 허리를 펴지 못했다. 그래서일까. 잠깐 허리를 펴고 일어서는데 고통이 밀려왔다. 다리에도 경련이 생기기 시작했다.

1만 6528.9㎡(5000평) 너비 배추밭에서 배추 1㎏을 수확하는데 받는 일당은 50원. 하루 온 종일 작업하면 10만원 가량을 받는다.

노동 강도가 세지만 일당은 높지 않아 올해는 일손 구하기도 여의치 않다는 게 농협 측 설명이다.

매년 이맘때면 수확 작업을 펼치는 인부·운반차가 뒤엉켜 오도가도 못할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지만 올해는 평년 수준의 70%의 일당도 받지 못할 정도로 수확량이 적은 것도 한몫을 했다.

배추 재배 농민들의 한숨소리도 여전하다. 매년 정부의 공급·수급 예측이 빗나가면서다. 정부 말을 믿고 따랐던 농민은 매년 "또 속았다"면서 분통을 터트린다.

해남 지역의 경우 올해는 배추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정부 말을 듣고 상당수 농민들은 일찌감치 배추 농사를 포기하거나 심어 놓은 배추밭도 방치했다.

반면, 정부 예측과는 달리, 배추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일찌감치 배추 농사를 포기한 농민들만 손실을 보게 된 셈이다.

사전에 밭떼기로 계약을 한 농민들은 애초부터 헐값에 상인들에게 배추를 넘겨 손실이 더 컸다.

농민들은 "나라에서 올해 배추값이 떨어진다고 해 심어 놓았다가 인건비 등이 더 들것 같아 관리를 안했는데, 배추 값은 평년 수준이라니 화가 안 나게 생겼냐"면서 "정부가 배추 수요·공급 예측만 제대로 해줘도 농민이 덜 고생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올해 해남에서 가을 배추를 재배한 농가는 모두 2583가구. 지난해(2636가구)보다 줄었지만 대규모 재배 농가가 늘면서 재배 면적은 1547ha로 지난해 1443ha보다 104ha 늘었다고 한다.

평년 가을배추 거래가(10㎏당)는 5000원~6000원. 지난해 같은 기간 6000~1만2000원보다 크게 떨어졌지만 평년 가격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남군 측은 예상하고 있다. 정부 예측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농민 김모(57)씨는 "배추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배추농사를 포기하고 마늘농사를 지었는데, 오히려 배추 가격은 안 떨어지고 마늘가격은 급감했다"며 "(정부에서) 수요예측만 제대로 해줬다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누가 피해보상을 해줄 것이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나마 배추값도 널뛰기를 반복했다. 이달 22일을 기준으로, 배추 소매가격은 10㎏을 기준으로 ▲2010년 9963원 ▲2011년 2361원 ▲2012년 8264원 ▲2013년 6964원으로 변동이 컸다. 지난 19일에는 4162원 하던 가격이 하루 만에 5832원으로 급등하기도 했다.

해남군 관계자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몇 군데 밭을 찍어 표본조사 방식으로 예측하는 것으로는 수급·공급량 예측에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해남군측은 이에따라 "자치단체에서 통장이나 이장들로부터 수집하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더해 수요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등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에 있는 배추밭에서 농부들이 근심어린 표정으로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농촌까지 파고든 불법 스포츠 도박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농촌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최모(37)씨와 박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상습도박자 등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농촌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외 축구·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고액 베팅이 가능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대법, 'DJ 명예훼손' 지만원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서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또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하기도 했다. 1심은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

조성터널 추돌사고 1명 숨져

23일 오전 1시15분께 보성군 조성면 조성 1터널에서 승용차가 5t 트럭을 추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국인 운전자 진모(28)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5t 트럭 운전사는 타이어가 터져 차를 세우고 수리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호랑이에 사육사 물려 중태

휴일인 24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우리를 탈출하려던 호랑이가 사육사를 물어 중태에 빠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와 과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대공원의 수컷 시베리아호랑이(3)가 실내 방사장 문을 열고 나와 관리자 통로에 앉아있다가 사료를 놓던 사육사 심모(52)씨의 목을 물어 심씨가 위중한 상태다.

/연합뉴스

심야버스로 이동하며 차량털이

쌍나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심야시간 버스로 이동하며 승용차와 택시를 털어온 절도범이 경찰서행.

○…24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석모(23)씨는 지난 17일 새벽 여수시 오림동 일대에서 주차된 승용차와 택시의 유리창을 깬 뒤 현금을 훔치는 등 목포, 여수, 순천 등지에서 모두 36차례에 걸쳐 4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석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새벽 시간에 심야 버스로 옮겨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뒤 서울로 도망가는 방법을 썼는데, 경찰은 범행 장소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석씨를 검거.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백운동 까치고개 (동아일보 사옥)

메디칼센터 (병·의원) 임대

2층 : 양·한방 입점 완료
3층 : 피부과·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입점 가능

넓은 주차장(80대주차가능) / 저렴한 임대비

문의 062) 651-6581 010-3690-7790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 프론트(신입 및 경력) 남·여 …… 0명
- 코스관리(신입 및 주임급) 남 …… 0명

2.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골프장 유경험자 우대

3. 급 여
- 연봉제(면접 후 결정)

4.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 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5.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해당자)
※ 이력서 우측상단 지원분야 및 희망연봉 기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 충원시까지(충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7. 접 수 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서당매길 242
- 담 당 :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 061-320-7717
- 팩 스 : 061-320-7710
- 이메일 : seungtae01@naver.com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상품명	상품설명	주요채널	가 격
골프/스포츠팩	골프중계를 비롯한 골프정보가 가득한 골프팩	SBS Golf, J Golf	3,000원
다큐팩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큐팩	NAT GEO ADVENTURE, Discovery	2,000원
오락팩	최신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오락팩	SBS, MBC	2,000원
키즈팩	영, 유아 어린이 대상의 키즈팩	KBS Kids, Disney Junior	2,000원
취미팩	바둑채널이 포함된 취미팩	바둑TV, Arte	2,000원